

마귀의 본체는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사망을 없애는 이긴자가 나와야 천지개벽이 돼

마귀의 본체는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소탕시키는 기도를 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조금씩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는 역사이지, 바깥에 있는 마귀를 죽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죽이고 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결코 죽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된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고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인간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마귀가 있는 까닭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수 마귀라는 걸 모르면 종교가 아니다

오늘날 이 세상 종교들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수마귀라는 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인간의 원수인 마귀요, 인간을 죽이려는 사자마귀라는 사실을 모르다는 것은 마귀 종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늘 사람 같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높은 경지의 도를 닦은 사람들은 전부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투쟁을 했지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도를 닦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짜 구세주인 자 가짜 구세주인지 뭘 봐서 알 수 있느냐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 영 때문에 인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을 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도통한 사람은 인간이 본시 하나님이

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마다 공통적인 성품, 즉 누구든지 죽기를 싫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싫어하고, 양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곧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 양심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바로 생명력의 영인 고로 하나님의 영인 고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까닭에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되는 사람의 영을 마귀가 제일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죽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양심이 죽는 것이요, 양심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그대로 병들어서 죽는데, 병이 왜 드느냐하면 '병마(病魔)'라고 글자 그대로 병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병이 들고 안 드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체라는 그러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체라는 신념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몸인 고로 마귀는 마귀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신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신이 마귀를 바라보기만 하면 마귀가 소멸되는 고로 마귀가 이긴자의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면 별별 떠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긴자 나오기를 고대하 하나님 심정이 기



구세주 조희성님

록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일곱 번이나 위해서 말한 말씀이 있죠? "이긴자가 나타나면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긴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기는 자는 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다시는 나가지 아니 하리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썩어 있느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이긴자가 곧 이기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야 구세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기는 상태에서는 구세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일곱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긴자 구세주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긴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서 14장 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긴자예요. 이슬이 내리는 이긴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고 하는 말은 바로, 구주는 백합화라고 그랬죠? 또 명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밝은 새벽별, 그러니까 바로 밝은 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세주요, 이슬성신 내리는 이긴자가 백합화이니, 백합화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슬성신 내리는 자가 구세주인

고로 일곱 번이나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여 말씀한 것을 보면 이긴자가 나타나야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 세상천지가 개벽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이란 인간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런고로 천지개벽이란 인간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마귀 육에 갇혀 있다가 마귀 영 육(鐵)을 부셔버리고 살아 나와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회복될 때에 육천년 만에 회복되는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부활의 의미도 모르는 기독교, 부활의 뜻도 모르는 종교

교단체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부활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말이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지, 육적인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의 말이고, 그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을 향해서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는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온 자인 고로 지금까지 마귀들이 인간들을 속여 왔던 것을 낱알이 집어내서 여러 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역시 너희들은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소리예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은 바로 부활함을 입으라는 말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지요? 다 똑같은 말이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과 생명과일을 먹으라는 말과 생명과일은 영생의 영을 먹으라는 말인 고로 그런고로 옛날에 마귀가 되는 선악과를 먹어서 마귀 종 인간이 된 것처럼 생명과일을 먹어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승리의 영이 생명과일인 고로 생명과일을 먹어서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말이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도 하자가 없는 아주 앞뒤가 맞는 조리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하는 자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히 못한 것이 폐하리라(고린도전서 13:10)"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

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린도전서 15:54)" 그러니까 이긴자가 나타나면 사망이 이긴자에게 삼킨바 되어서 사망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 바로 죽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겠죠? 그런고로 죽지 않아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죽지 않아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편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지, 죽음의 세계에서는 하늘나라가 있을 수가 없고, 죽음의 세계에서는 고통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오면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런고로 죽지 않는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죽음을 없애버리는 이긴자가 나와야 되고, 그 이긴자가 나오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시대가 열리려고 있는데, 죽음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생활을 거듭하면 그는 죽지 않는 세계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 세계에서 살려면 바 여러분들이 이제 이긴자의 생활, 나를 이기는 생활, 초초로 나와 더불어 투쟁해서 나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영생을 하는 거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만날 나라는 의식한테 쟁쟁하게 쫓겨 다니고,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2일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박명하



이긴자가 나오지 않았던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씩 죄를 담당하는 연습을 통하여 죄 담당 능력 키워

영모님이 1980.10.15 이긴자가 되는 날, 영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건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 이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자. 내가 죄인을 구하여 보려고 매달질을 치며 고생한 것도 헛겨운데 너마저 그런 고생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그만하고 이 세상을 쓸어버려자"고 하셨다.

당시에 이 사람은 과거 죄인인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서라도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필요 없으시면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고, 지옥에 던져도 좋으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을 따라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생활을 했었다.

그런 고로, 영모님의 그 말씀에 이 사람은 "제가 받은바 은혜를 하나님에게 보답을 만 분지 일이라도 해야 되겠나이다. 이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 있

으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기간을 맡겨주신다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못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늘 기도한 그대로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나다

이와 같이 말할 때에 영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히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많은 사람을 은혜를 주려고 애를 썼지만 건질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네 뜻이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허락을 받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삼 년 반, 삼 년 반, 삼 년 반 세 판지기 기간을 이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 사람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와이긴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이미 인간 조희성이 아닌 것이다.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전지전능을 휘두르는 신적 존재가 된 것이다. 우주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먼지보다 작아질 수



이긴자를 배출한 밀밭 / 그림 박준구 정로

도 있고, 태산보다 큰 존재로도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하여 1980년도 하반기에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당한 후, 1년 동안 밀밭 안에 있는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사람

씩 죄를 담당하다가 그것이 가능해지면,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단계별로 능력을 키우는 연단을 쌓아서 1년이 지난 1981년 8월에야 비로소 "이제 세상에 나가 이 도를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나와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어 전도를 하여 역곡에서 40명의 성도로서 승리제단을 세웠다.

이때, 역곡에서 역사하는 이 사람의 역사를 암시하여 영모님께서는 전도 관에서 "5중앙에 중생원을 차리고 처녀 대학생을 40명 모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하여 서울 청량리에 있는 5중앙에 중생원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중생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녀 대학생이면 신앙 면에서도 거리가 먼 상태여서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역사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담당하여 의인으로 키워내는 역사를 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역곡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으며,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중생이 거듭나는 제단이 있다."는 뜻이요, 5중앙이란 것은 이 사람을 키울 때 '5' 숫자로 불인 별호를 암시한 것으로 5숫자가 구세주가 되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기를 준비한 다섯 처녀가 신앙을 맞이한다는 글이 있는데, 세상 죄인의 혼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신앙이라면 죄인

이 절결한 존재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 신앙의 신부가 되어 성령을 맞이할 예비를 하라"는 것이다.

죄인의 입장에서나 남자이며 여자인지,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것이다. 현재 죄인은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신앙으로 자리잡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비워서 하나님의 신을 모실 자제가 되어 있는 사람을 기를 준비한 처녀라 한 것이다. 40명이란 사람의 머리 숫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4'는 땅의 완전수이므로 땅에서의 의인, 즉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를 말하고 '십(拾)'자는 손(手)변에 합할 합(合)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합하는 역사를 말한 것이다.

그런고로 '사십(40)'이란 '수고를 하여 합하는 역사를 하는 자' 즉 역곡에서 구원의 역사를 즐기게 행하는 이기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